

# 에이즈검사는 보건소에서



**서동희**  
대한적십자사 서울서부혈액원  
의무관리실장

국내에서는 헌혈 혈액에 대해 1997년부터  
에이즈검사결과를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  
**위험한 행위**를 한 이후 에이즈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헌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헌혈** 경우 감염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지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에이즈검사는 반드시 전국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받아야만 에이즈감염여부를 알 수 있다.

지난 5월 12일 국립보건원에서는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  
의 헌혈 혈액이 두 명의 환자에게 수혈되어 이들 환자에서  
에이즈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1995년 이후 국내  
에서는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없었는데, 그 기록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 헌혈자에게 검사결과 통보 않아

에이즈의 수혈 감염이 알려진 1987년부터 국내에서는  
모든 헌혈 혈액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 초기에는 헌혈자에게 에이즈검사 결과를 통보해  
주었지만,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1997년 3월 이후부  
터는 에이즈검사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고 있다. 이는  
첫 번째, 헌혈자의 주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우편으로 발송된 헌혈검사결과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  
람에게 노출될 경우 그 당사자의 피해는 자못 클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에이즈 검사를 목적으로 헌혈하는 것을 예  
방하기 위해서이다. 순수한 의도에서의 헌혈이 아닌 에  
이즈 검사 목적의 헌혈자의 경우는, 본인이 뭔가 에이즈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헌혈을 통해  
그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헌혈자보다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현재  
검사로서는 에이즈 감염 초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대개 에이즈 검사 목적의 헌혈자들은 지속적으로 헌  
혈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이은 헌혈이나 검사에서 인면  
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로 판명되면 이전의 헌혈  
혈액 속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  
다. 그 결과 이들의 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에서 에이즈  
가 발병할 가능성이 보통의 헌혈자 헌혈 혈액보다 매우  
높아진다.

이번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도 원인 헌혈자가 감염  
초기였기 때문에 혈액원 검사에서 HIV 음성으로 나와

환자에게 수혈되었다. 따라서 에이즈 검사를 목적으로 헌혈을 하는 것은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결코 해서는 안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헌혈자들에게 에이즈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헌혈자에게 에이즈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다.

### HIV검사 목적의 헌혈은 위험

우리나라는 현재 약 250 만명의 국민이 타인을 위해 자신의 혈액을 헌혈해 주고 있다. 이렇게 헌혈되는 혈액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을 포함한 전국의 혈액원에서는 기본적인 ABO 및 Rh 혈액형검사, B형 간염항원 검사, C형 간염항체검사, 그리고 HIV-1/2에 대한 항체검사, 그리고 매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의 목적은 안전한 혈액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수술받는 환자가 수혈로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수혈된 혈액으로 인해 간염이나 에이즈가 발병한다면 환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혈액을 공급한 기관에 큰 상처를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강한 헌혈자의 선택과 헌혈혈액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표지자 검사는 혈액 서비스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다. 하지만 이러한 헌혈자 선별과 검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사상의 한계로 국내에서 연간 사용되는 약 400 만 개의 혈액 중 2개 정도가, 검사상 음성을 보이지만 에이즈를 감염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감염 확률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내에서 수혈 감염 에이즈가 없었던 것에 대해 혈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헌혈자와 일반 국민의 올바른 헌혈에 대해 매우 고맙게 여기고 있다.

앞으로도 에이즈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비밀을 보장하면서 무료로 검사를 해 주는 전국 보건소를 이용해, 다시 한 번 수혈 감염 에이즈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에이즈 선별검사인 효소면역측정법은 HIV 항원/항체의 존재가 의심되는 모든 경우를 검출하기 위해 검사의 민감도가 매우 높다. 그 결과 진짜 HIV 항원/항체 양성인 경우보다 다른 원인에 의한 위양성 검사 결과가 많다.

그래서 HIV 선별검사 양성자 중 진짜 HIV 감염자는 2% 미만이다. 예로 2002년도 총 2,490,141명의 헌혈자 중 2,005명이 에이즈 선별검사에서 양성을 보였고, 이 중 34명만이 실제 감염자인 것이 국립보건원 최종검사서에서 확인되었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헌혈자에 극히 일부이지만 에이즈 감염자가 있다.

이들 감염자의 혈액은 검사에 의해 그 혈액이 폐기되었지만, 이들 헌혈자들이 병원체 미검출 시기에 헌혈을 했다면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혈액원에서는 사전 검사로 감염의 위험이 있는 혈액을 최대한 찾아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헌혈자 자신이다. 사실 헌혈자가 깨끗하고 안전한 혈액을 가지고 있다면 응급의 경우 검사하지 않고 수혈해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안전한 혈액이 수혈받는 환자의 안전에 기본이 됨을 가슴에 담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가 7년 만에 발생했지만, 현재 우리 나라는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에 있어서는 선진국보다 더 낮은 위험도를 보이고 있어, 환자들은 안심하고 수혈을 받아도 된다. 한편 헌혈의 집, 헌혈버스 등에서 헌혈을 하고자 할 때 아직은 독립된 공간에서 헌혈지원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솔직한 문진을 못하고 있어 앞으로는 독립된 면담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는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헌혈자를 등록시켜 이들의 혈액을 정기적으로 헌혈받는 '등록헌혈자' 제도를 운영하여 헌혈 혈액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